

한국형 예약녹화시스템 채용 VCR 「바로K」

개발

대우전자(주)

대우전자(대표 배 순훈)는 한국형 예약녹화시스템을 채용한 「바로K」 VCR(모델명 DV-F69)를 개발, 시판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대우전자가 이번에 출시한 「바로K」 VCR는 방송국에서 보내주는 현재부터 7일간의 방송프로그램을 TV로 볼 수 있다. 또 방송프로그램분류기능을 통해 프로그램을 종류별로 찾아볼 수 있고 프로그램 상세 안내기능을 이용한 일부 프로그램의 내용확인까지 가능해 신문이나 잡지의 TV프로그램안내를 볼 필요가 없는 한국형 예약녹화시스템이다.

차량용 CB 2종 시판

맥슨전자(주)

맥슨전자(회장 윤 두영)는 차량용 생활무전기(CB 트랜시버) 2종을 개발, 이달 말부터 본격 시판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맥슨전자가 이번에 출시한 모델은 MCB-78K 등 2종류로 27MHz대역의 주파수를 사용하며 고성능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사용, 고감도·저잡음의 통화음질을 구현하고 모델별 특성에 맞는 고유기능을 부여

해 운용에 있어 탄력성을 기했다.

이 생활무전기의 출력은 3W이며 △40개 전체널 수신가능 △대형 LCD 디스플레이 △업/다운 기능 △스캔기능 △외부 스피커 사용 가능 △외부 스피커 사용 가능 △마이크에 채널 업/다운기능 등을 내장했다. 특히 MCB-48K는 부가적으로 M1-M5메모리가 채널 사용기능, RF증가조절 기능, 마이크 증가조절 기능, PA기능 등을 추가해 운용상 선택의 폭을 넓혔다.

의료용 레이저 사업

진출

(주)메디슨

메디슨(대표 이 민화)이 의료용 레이저 사업에 신규 참여한다.

메디슨은 레이저 치료기 전문업체인 이스라엘 LBT社와 레이저치료기를 OEM방식으로 생산키로 합의하고 빠르면 올해말부터 CO₂, Nd:YAG레이저 Er:YAG레이저 등 현재 LBT가 생산하고 있는 7~8 종류의 레이저치료기를 국내에서 제작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메디슨은 최근 LBT의 국내 대리점인 미디어나社의 레이저사업부를 전격 인수, 레이저사업팀을 구성하고 강원도 홍천에 공장부지를 마련하는 등 본격 사업에 착수했다.

또 메디슨은 OEM방식으로 생

산하는 기간동안 기술이전도 병행, 내년 6월까지 LBT와 공동으로 Er:YAG와 Ho:YAG레이저가 결합된 특수레이저 및 4개 파장이 발생하는 멀티 웨이브 렌스레이저를 세계 최초로 개발키로 했으며 97년까지 메디슨만의 독자모델을 개발키로 했다고 말했다.

특히 양사가 공동 개발하는 이 제품들부터는 OEM 생산하는 제품「LBT메디슨」브랜드를 사용하고 미국과 유럽시장에는 판매하지 못하는 것과는 달리 「메디슨」브랜드로 美·유럽을 포함한 전세계 판권을 갖게 되며, 기술이전에 따른 별도의 수수료 없이 LBT가 생산하는 일부 부품을 사용하는 것으로 대체하는 등 계약조건도 좋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컬러 잉크젯 2종

개발

(주)삼보컴퓨터

삼보컴퓨터(대표 이정식)가 720dpi 해상도의 컬러잉크젯 프린터 2종을 개발하고 본격시판에 나섰다 고 밝혔다.

이번에 시판되는 컬러·흑백잉크 동시장착용(2펜) 「스타일러스 II」와 컬러·흑백잉크 교체용(1펜) 「스타일러 II s」는 컬러·흑백 모두 720dpi의 고해상도 제품이면서도 가격은 컬러출력 환경의

대중화에 맞춰 각각 50만원대와 30만원대로 인하시킨 것이 특징이다.

특히 이 제품들은 컬러출력시 장당 1백원을 호가하던 기존의 소모품비용을 장당 78원으로 인하시킴으로써 컬러잉크젯 사용자들에게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유지비를 기존의 50%선으로 떨어뜨렸다.

초소형 칩저항기 개발

삼성전기(주)

삼성전기(대표 이형도)가 그동안 전량 일본에서 수입해온 1005 타입 초소형 칩저항기와 2종의 관련 생산장비를 자체개발, 국내 처음으로 양산에 돌입한다.

삼성전기는 지난해 1월부터 2

억여원을 투입, 현재 상품화되어 있는 제품중 최소형인 가로 세로 1.0×0.5mm 크기의 칩저항기 개발에 성공, 이달부터 월 1천만개 규모로 본격 양산에 나서며 이와 관련해 6건의 기술 특허를 국내 출원했다고 밝혔다.

삼성전기의 1005 칩저항기는 국내 시장만 해도 올해 8천만개에서 오는 2000년에는 85억개로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유망품목으로 기존 국내업체가 생산설비 및 양품을 未확보로 양산에 어려움을 겪어 전량 對日수입에 의존해 왔다.

이 제품은 △무선호출기 등 이동통신기기 △노트북 및 HDD 등 컴퓨터 △캠코더 등 첨단제품에 탑재되고 전자회로 내에서 전류의 흐름을 제어, 콘덴서와 결합해 화면의 일그러짐이나 핸드폰

잡음 등 노이즈 신호를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

22" TFT-LCD 개발

삼성전자(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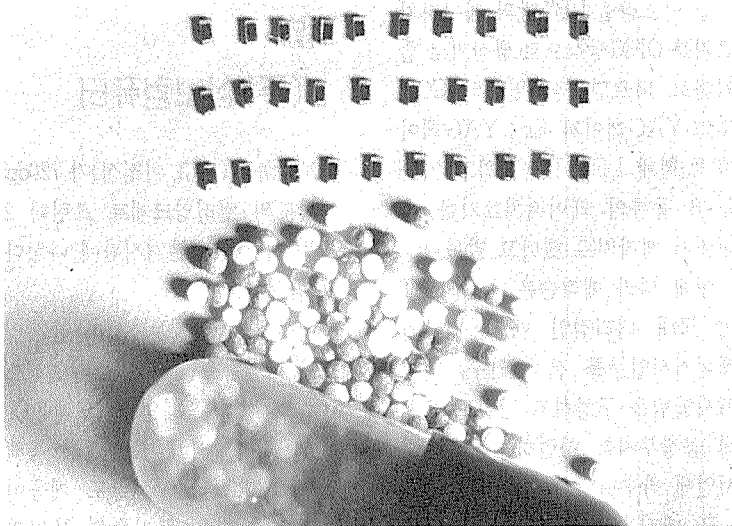
삼성전자가 세계에서 가장 큰 22인치 박막트랜지스터 액정디스플레이(TFT-LCD)의 자체개발에 성공했다.

삼성전자(대표 김광호)는 벽걸이TV·스탠드TV 등 미래형 TV 및 멀티미디어의 핵심 표시장치로 떠오르고 있는 대화면 TFT-LCD시장을 겨냥, 지난 92년부터 4년간 150억원의 연구개발비를 투입, 최근 세계 처음으로 22인치 제품을 개발했다고 발표했다.

일본 업체들이 세계시장의 90% 이상을 독점하고 있는 TFT-LCD는 그동안 샤프가 개발한 21인치 제품이 최대였으나 이번에 삼성전자가 22인치 기종을 발표, 韓·日간 개발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이번에 선보인 제품은 184만 3,200 화소의 트랜지스터를 집적하고 100% 완전한 동작에 성공, 트랜지스터 집적률이 100만화소 미만으로 알려진 샤프의 21인치 제품에 비해 해상도가 훨씬 뛰어나며 반도체로 말하면 256 MD램 개발과 맞먹는다」고 설명했다.

삼성 22인치 TFT-LCD가



단위 화소당 발광면적 비율인 開口率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인 75%를 실현했고 응답속도 역시 40밀리초 이하로 구동이 가능해 동화상은 물론 HDTV보다 선명한 컴퓨터 그래픽 화상을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TV용 8비트 마이컴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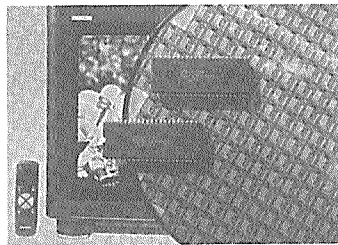
삼성전자(주)

삼성전자(대표 김광호)가 IIC(Inter Integrated Circuit)설계방식을 이용한 컬러TV용 8비트 마이크로 컨트롤러(마이컴)를 개발했다.

삼성전자가 5억원을 들여 개발에 성공한 이 제품은 칩 내에 정보가 이동할 수 있는 이동통로(BUS)를 기존 제품과는 달리 2개로 설계한 IIC설계방식을 채택해 내부 정보 데이터를 양방향으로 전송할 수 있으며 여러개의 주변 IC를 동시에 조정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특히 이 제품이 IIC설계방식을 채용, 부품 수의 최소화와 함께 제조공정 단축이 가능하고 자동화면표시(OSD)기능을 비롯한 여러가지 기능을 내장하고 있어 컬러 TV업체의 경쟁력 확보에 적지 않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컬러TV용 8비트 마이컴은 그간 거의 전량 日産을 사용해 왔는데 이번 개발로 연간 5천만달러의

수입대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내 세트 업체는 물론 연간 15% 이상의 고성장이 예측되는 세계시장 장악을 위해 수출시장 개척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PC용 카드시장 진출

쌍용정보통신

쌍용정보통신(대표 김용서)이 내년부터 PC용 컴퓨터지원설계·생산(카드캠)시장에 본격 진출한다.

쌍용정보통신은 기존의 중대형 중심의 카드캠 영업과 병행, 최근 부각되고 있는 PC용 카드시장 진출을 적극 모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쌍용은 기존 공급사인 프랑스 마트라社의 중대형 카드캠인 유클리와 함께 PC용 카드캠 「프레루드」시리즈를 본격 공급할 계획이다.

쌍용이 내년부터 본격영업에 나선 프로그램은 프레루드 드래프팅, 프레루드 애널리시스, 프레루드 매뉴팩처링, 프레루드 솔리드(NT버전) 등 네가지 버전이다.

쌍용의 PC용 카드시장 진출은

IBM의 카담·카티아 통합 PC버전의 공급에 이어 국내 PC용 카드의 대명사인 오토카드시장 공략 본격화를 의미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64비트 VGA카드 개발

석정전자

석정전자(대표 박재수)가 소프트웨어 MPEG가 가능한 64비트 그래픽 가속기능을 지닌 64비트 VGA카드를 개발했다.

석정전자는 1년간의 연구끝에 소프트웨어 MPEG가 가능한 64비트 VGA카드(모델명 TGV64)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미국 트라이던트社의 64비트 그래픽 가속칩인 「TGUI9680XGi」를 탑재한 이 VGA카드는 최대 1,600×1,200해상도에서 자연색을 제공한다.

특히 이 제품은 소프트웨어 MPEG를 지원하기 위해 DCI드라이버 소프트웨어 MPEG플레이어 프로그램을 탑재해 초당 30프레임 정도의 비디오 CD 화면을 구현할 수 있다.

석정전자는 또 이 제품에는 PS/2 마우스포트가 내장돼 시리얼 부속에 따른 주변기기 연결의 어려움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석정전자는 「TGV64」를 이달 중순부터 본격 생산, 시판에 나설 계획이다.

IC카드 판독기 개발

송우전자

송우전자(대표 안재인)가 IC카드의 발급 및 조회 전자통장 회원관리 등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IC카드판독기(모델명 SIR-600)를 개발했다.

송우전자는 스마트 카드 메모리 카드 등 ISO7816의 규격에 만족하는 데이터를 읽고 저장할 수 있는 IC카드를 개발, 이달부터 본격적인 공급에 나섰다.

이 IC카드 판독기는 사용자의 편리성을 고려해 콤팩트하게 설계했으며 카드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랜딩타입의 접점을 사용하는 등 높은 신뢰성을 구현했다.

특히 이 IC카드판독기는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데이터의 암호화 등을 통해 보안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했으며 RS-232C, RS-485, 키보드 등 다양한 전송방식에 의해 데이터를 호스트에 송수신할 수 있다.

이 IC카드판독기의 크기는 74×124×59mm이며 무게는 300g으로 작고 가볍고 설계해 사용이 편리하다.

잉크젯 PPF 개발

신도리코

신도리코(대표 우석형)는 국내

최저가인 70만원대 잉크젯 방식 일반용지팩시밀리(모델명 젯팩스)를 개발, 이달 중순부터 본격 시판에 나선다고 밝혔다.

신도리코가 이번에 개발한「젯팩스」는 저가화에 유리한 잉크젯 방식을 채택해 기록지 보관, 재활용 등 일반용지팩스(PPF)의 다양한 장점을 그대로 살리면서 소비자가 겪은 70만원대로 낮췄다.

현재 국내에 보급되고 있는 PPF는 대부분 레이저나 LED 방식을 채택, 최저 120만원에서 200백만원 전후의 가격대를 형성해 여러가지 장점에도 불구하고 보급대중화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신도리코의 젯팩스는 잉크젯 방식으로 300dpi(인치당 도트수) 해상도를 제공하며 32단계 중간조를 구현, 사진이나 그림원고 수신사에도 선명한 화질을 나타낸다.

이 제품은 한번의 조작으로 70곳까지 원고를 송신할 수 있는 순차동보와 수신물을 메모리에 저장했다가 전화회선 사용이 종료된 후 자동출력하는 대행수신, 여러 종류의 원고를 각각 다른 시간을 설정해 송신할 수 있는 시각지정 송신기능 등을 제공한다.

스페이스 칩 개발

(주)아남반도체기술

(주)아남반도체기술(대표 김

무)은 그래픽처리 One Chip Embedded Controller SPACE Chip을 개발 했다고 발표했다.

스페이스 칩은 CPU와 오버레이 그래픽 컨트롤러를 내장하여 TV, VCR, AV System, CATV, DBS(Direct Broadcast Satellite), Video CD, 노래방기기, 가정용 정보단말기 등 다양한 제품에 응용할 수 있다.

스페이스는 최고 512×510 Resolution, 16칼라 그래픽 컨트롤러를 내장한 칩으로써, 외부 NTSC(National Television System Committee)Encoder를 부가해 TV나 VCR의 화면에 다양한 문자 및 도형표시를 디스플레이 할 수 있으며, 비디오 출력이 TV에 바로 접속 되므로 가정에서 사용되는 AV기기에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제품이다.

또한 단일 칩에 마이크로프로세서, 오버레이 그래픽 컨트롤러, DRAM 컨트롤러, 호스트 컴퓨터 접속용 시리얼 인터페이스, 리모콘 인터페이스를 내장하여 콤팩트 시스템 제작이 가능할 뿐 아니라, 최신의 ASIC기술을 채용하여 프로세서의 속도를 14MHz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특히 노래방이나 게임음악을 쉽게 구현할 수 있도록 미디 인터페이스를 지원하며, 호스트 컴퓨터와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시리얼 송수신 포트를 가지고 모뎀기능을 부가하면 TV를 이용한 통신단말기로도

사용 가능하다.

(주)아남반도체기술은 응용범위가 다양한만큼 향후 스페이스 칩의 수요량을 년 백만개 정도로 예상하고 있으며, 11월 중순부터는 본격적인 양산체제를 갖출 계획이다.

세계최초 “멀티미디어 만능칩” 개발

LG반도체(주)

LG반도체(대표 문정환)는 영상, 음성, 2차원/3차원그래픽, 팩스모뎀, 텔레포니(PC전화), 화상회의등 모든 멀티미디어 기능을 “하나의 칩”으로 구현할 수 있는 차세대 멀티미디어 칩을 세계최초로 개발하는데 성공하는 개가를 올렸다.

이번에 개발한 칩은 “Mpack Media Engine”으로 미국의 멀티미디어 설계전문회사인 크로매틱社와 공동으로 약 2년간에 걸쳐 개발하여 성공한 것이다.

“Mpack”칩은 기존에 각각 별개의 카드로 구현했던 MPEG 카드, 사운드 카드, 팩스모뎀 카드, 그래픽카드, 3차원 그래픽 카드, PC 전화화상 카드 등 PC의 모든 멀티미디어 기능을 하나의 칩으로 실현했기 때문에 시스템의 소형화와 시스템과의 호환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였을 뿐만아니라 기존보다도 가격을 반 이상 절감한 가격

경쟁력 있는 획기적인 제품으로 멀티미디어 PC에 널리 채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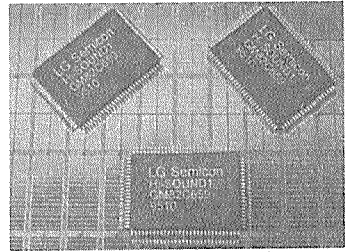
세계적인 반도체 통계기관인 In-Stat에 의하면 멀티미디어 PC 시장은 '95년 4,200만대에서 매년 20% 이상의 신장을 전망하고 있어 “Mpack”의 세계시장 규모는 '97년 7억불 2000년에는 15억불 이상이 예상된다.

LG반도체는 동계품을 '96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양산하여 멀티미디어의 최대 시장인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 유수의 멀티미디어 PC메이커를 대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이번 개발은 LG반도체가 추구하는 모든 첨단기능을 하나의 칩으로 구현(All in One)하는 멀티미디어 핵심 반도체인 “하이칩(Hi-CHIP)”의 대표적인 제품으로 올 10월에 개최되는 '95 KE Show와 11월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개최되는 Comdex Show에 출품할 예정이다.

LG반도체는 이번 개발을 통해 차세대 멀티미디어 기술력을 확보하게 되어 시스템의 고성능화, 멀티미디어화에 적극 대응하고 멀티미디어 기술력을 선도할 수 있게 되었으며 동 분야에서 선두업체로 진입함으로써 비메모리 사업의 획기적인 성장이 기대돼 메모리에 비해 취약한 한국의 비메모리 사업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Hi-Sound IC 국산화 LG반도체(주)



LG반도체(대표 문정환)가 사운드카드에 탑재된 컨트롤러용 반도체 기능을 소프트웨어로 대체하면서도 소프트웨어로 대체하면서도 음원기능을 완벽하게 구현할 수 있는 하이 사운드(Hi Sound) IC를 업계 처음으로 개발했다고 발표했다.

기존의 사운드카드는 코덱, 사운드IC, 음색롬(ROM), 램(RAM), 8비트 MCU, FM IC, 롬 등 7개의 반도체를 채용해 왔는데 이번에 개발한 사운드IC는 MCU, 롬, 램, FM IC등을 소프트웨어로 대체해 사운드IC와 코덱, 음색 롬 등 3대의 반도체만으로 사운드카드의 기능을 완벽히 구현하는 획기적인 제품이라고 LG측은 설명했다.

또 이 음원IC는 PCM 및 FM 방식의 겸용 제품으로 4개의 컨트롤러 IC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 사운드카드 크기의 축소는 물론 원가도 30% 이상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LG는 시스템의 여러 하드웨어

를 소프트웨어로 대체하는 이번 기술 개발로 원가절감은 물론 다양한 환경에 적용할 수 있는 사운드 관련 토털 솔루션을 확보함으로써 향후 멀티미디어 사운드분야 시장개척이 한층 용이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체형 CCTV용 디지털 감시카메라 국산화

LG하니웰(주)

LG하니웰(대표 권태웅)은 최근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줌렌즈가 본체에 내장된 일체형 CCTV용 디지털 감시카메라(모델명 GC-255N/P)를 개발, 11월부터 본격 시판에 들어갔다.

LG하니웰이 1년여에 걸쳐 2억원의 개발비를 투입, 이번에 개발한 디지털 감시카메라는 12배의 줌렌즈를 본체엔 내장해 외부 충격으로부터 렌즈를 보호할 수 있으며 부품수가 250여개로 아날로그 방식에 비해 고장률이 낮고 콤팩트한 디자인이 특징이다.

특히 디지털신호처리(DSP)방식을 채용, 노이즈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자연색에 가까운 화질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와함께 역광에서도 피사체를 정확히 잡을 수 있는 역광조정기능과 서터스피트를 8단계로 선택

할 수 있으며 최소 60분의 1초에서 최대 1만분의 1초까지 빠르게 움직이는 피사체를 선명하게 잡을 수 있는 자동서터 스피드 기능을 채용했다.

또한 캠코더에 채용되는 자동초점조정기능을 도입, 원하는 초점을 중심으로 초점외 영역의 밝기까지 자동으로 조절할 수 있으며 CCTV시스템 조종실에서 12배까지 확대·축소할 수 있다.

LG하니웰은 이 일체형카메라를 금융기관 공장 연구소 빌딩 등 CCTV감시분야에 공급할 계획이며 현재 외국제품이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CCTV용 카메라 시장에서 수입대체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HIC전분야 ISO 인증 획득

(주)유양정보통신

유양정보통신(대표 조소연)은 HIC의 계약·설계·개발·생산 및 AS 등 전공정에 대한 ISO9001 국제품질인증을 획득, 지난 10일 한국공업표준협회 부설 품질 인증센터(KSA-QA)로부터 인증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이번 인증획득을 계기로 내수는 물론 기존의 중국시장에 이어 일본, 동남아지역으로도 진출해 해외시장 공략을 강화할 계획이다.

동사는 그동안 국내 HIC업체로는 최초로 93년도에 1천만달러 수출을 수상했고 지난해에는 중국에 2,500만달러를 수출하는 등 해외시장개척에 주력해왔으며, 최근에는 사업다각화를 위해 부가가치 통신 및 케이블TV관련사업 등에도 본격 나서고 있다. 유양은 내년중 공진청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100PPM인증을 획득해 품질 개선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고해상 LBP 출시

(주)큐닉스 컴퓨터

큐닉스컴퓨터(대표 李凡千)는 1,200dpi급의 고해상도에 양면인쇄까지 가능한 저가형 A3크기 8PPM(분당 8장 인쇄)레이저프린터(제품명 큐레이저 SF600)를 개발하고 시판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 제품은 큐닉스의 인쇄품질 향상기술인 QET를 통해 원도와 혼글환경에서는 1,200dpi급의 출력력이 가능, 실제 엔진해상도인 600dpi보다 출력해상도를 높였다고 국내 최초로 자동 양면인쇄가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센트로닉스 병렬포트 외에 원도95환경의 ECP(Extended Capability Port)도 지원, 원도95 환경에서는 데이터 전송속도를 초당 2MB로 단축시키는 한편 PC화면 상에서 프린터의 상태를 직접 체크, 제어할 수도 있다.

광대역 코드분할 다중 접속(W-CDMA)

방식 PCS 단말기 개발 태일정밀(주)

태일정밀(대표 정 강환)이 광대역 코드분할다중접속(W-CDMA) 방식의 개인휴대통신(PCS) 휴대단말기 시제품을 개발했다.

태일정밀은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모두 10억엔의 연구개발비를 투자해 W-CDMA 방식의 1.8GHz대역 PCS속내용 휴대단말기 1차 시제품을 국내 처음으로 개발하는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 제품은 주파수분할 이중(FDD)방식을 채택해 데이터 전송속도가 4.608Mbps이며 송신출력은 최대 100mW로 한국이동통신의 PCS용 무선접속규격(CAI)을 적용했다.

1이 시제품의 크기는 52×120×10mm로 담배갑만 하며 무게는 300g, 주파수 밴드폭은 5MHz이며 리튬 이온건전지를 사용했을 경우 최대 6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어 기존 셀룰러 전화기에 비해 수명이 3배가량 길다.

태일정밀은 한국이동통신에서 제공하는 W-CDMA 칩 버전 1.0을 사용해 4채널 이동국의 개발을 완료, 이를 안정화 시켜 무선자동사설교환망(PABX)으로 발

전시키고 오는 96년께 상용화르 추진하며, 美國 US웨스트社에서 현장실험을 실시할 예정이다.

케이블 TV관련사업

진출

(주)한국통신

비디오폰전문업체인(주)한국통신(KOCOM·대표 고성욱)이 케이블TV방송 및 기기사업에 새로 참여한다.

(주)한국통신은 최근 추진하고 있는 정보통신 분야로는 사업다각화 차원에서 내년초 공고될 2차 케이블TV 사업자 모집에 참여하는 한편 케이블TV용 컨버터시장에도 신규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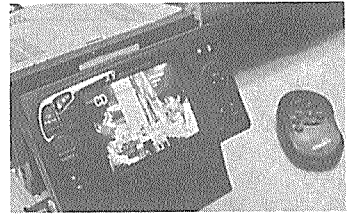
이를 위해 (주)한국통신은 부천시 지역 종합유선방송국사업자(SO)로 2차케이블TV사업자로 모집에 응모할 경기도 부천에 근거를 둔 10여개사가 주축이 되는 컨소시엄에 참여할 예정이다.

또 올초부터 기흥 전자부품연구소에 개발 요원을 파견해 케이블TV용 컨버터 개발에 들어갔는데 올해말까지 개발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 회사는 우선 부천 SO에 대한 컨버터 공급에 주력하고 점차 공급처를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자동차 AV시스템 개발

현대전자산업(주)



현대전자(대표 정몽헌)는 지난 94년부터 총 5억원의 연구·개발비를 투자해 카오디오를 대체할 수 있는 첨단 AV시스템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 카 AV시스템은 기존 카오디오 설치공간에 장착할 수 있는 제품으로 4인치 모니터와 카세트, 라디오 및 100W의 고출력 앰프가 내장됐다.

이 시스템은 특히 브라운관 대신 첨단 TFT-LCD(박막 트랜지스터액정표시소자)를 채용하여 화면이 선명하고 보는 사람의 눈높이를 고려해 화면각도를 상하로 조절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또 TV 및 라디오 수신향상을 위해 주파수간섭방지회로(diversity)가 채택됐으며 차량용 비디오 CD 오토체인저를 컨트롤 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어 TV시청은 물론 음악과 비디오를 함께 즐길 수 있다.

현대전자는 이 제품을 오는 96년 하반기부터 출시할 예정이다.